선거구 쪼개기 반발 순천 시민단체들 헌법소원

"무너진 주권·자존심 되찾자"
해룡면 불법 분구 항의 집회
77개 단체 참여…탄원서도 전달

순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선거구 쪼개기에 반발, 항의 집회를 열고 헌법 소원에 나섰다.

18일 순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17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만5000명의 해룡면을 순천시에서 떼어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분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지난 7일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편입됐다"면서 "순천시민의 주권이 도둑맞고 무시 당한 유례없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70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생겼다"며 "순천 시민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선거권을 위반한 사실을 그대로 둘 수 없어 헌법 소원을 청구해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밝혀내고 시민의 힘으로 해룡면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해룡면사회단체협의회, 순천YMCA,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순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봉균 해룡면사회단체협의회 회장과 김현덕 순천YMCA 이사장 등 8명을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단으로 구성하고 법무법인 지평의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대표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순천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도 함께 전달했다.

소송대리인 임형태 변호사는 "순천시민은 하나가 되어 시민의 힘으로 무너진 주권, 시민의 자존심을 꼭 되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월 기준 인구가 28만1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정된 선거구는 인구 5만5000명의 해룡면을 광양으로 통합해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적마스크 시민에 양보
순천시 공무원 솔선수범

반복사용 가능한 면마스크 착용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공적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반복 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사용키로 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청 공직자들이 이를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민들이 1개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반복 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산하 공직자 2000여명에게 지급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면 마스크 이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다만 공직자들 중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와 만성질환자 등은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 흑두루미 중간기착지서 서식지로

올 겨울 7700여마리 관찰
25일 이상 장기간 머물러

올 겨울 순천만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7700여 마리가 관찰됐다. 특히 순천만이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를 넘어 서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에서 올겨울 흑두루미 7700여 마리가 관찰됐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지난해 10월18일 순천만에 첫 도래한 이후 2700여 마리가 월동했다. 나머지 5000여 마리는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뒤 일본 이즈미로 이동했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전 세계 생존 개체수는 1만9000마리로 추정된다. 순천만과 일본 이즈미, 중국이 주요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흑두루미와 같은 대형 조류는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동안 체력을 보충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다.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흑두루미는 통상 봄과 가을에 1~2일 정도 머물다가 번식지나 월동지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동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번식지로 북상하는 일본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을 안정적인 서식지로 인식하고 25일 이상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순천만에는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합류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4000~5100여 개체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흑두루미 서식지가 한반도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서규원 순천시 순천만보전과장은 "민관 협력으로 흑두루미 서식지를 보전한 결과 순천만이 세계적 흑두루미 월동지와 경유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반도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천수만 등 국내 중간 기착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순천만 인근 가금농장 3곳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영구적인 무논습지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 흑두루미.

중요 목조문화재 보호
AI 영상감시시스템 도입

순천시가 중요 목조건축물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국보·보물 등 지역의 중요 목조건축물의 보호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인공지능(AI) 영상감시시스템(CCTV)'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프랑스 노트르담대성당 화재, 강원도 산불 등으로 중요문화재가 화마로 소실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허석 순천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긴급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중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송광사 등 3개 사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 감시기능이 적용되는 문화재는 송광사 국사전(국보 제56호)·하사당(보물 제263호)·약사전(보물 제302호)·영산전(보물 제303호), 정혜사 대웅전(보물 제804호), 선암사 대웅전(보물 제1311호) 등 3개 사찰 중요 목조문화재 6개소이다.

AI 감시시스템은 기존 CCTV와 연계돼 24시간 작동하며, 화재 또는 침입자 발생시 스스로 판단해 관리자(관리실)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공지능을 접목해 중요문화재를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서 9월 전국생활문화축제 열린다

순천만정원서 1만여명 참가

오는 9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열린다.

순천문화재단(이사장 허석 순천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로 순천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활문화축제다.

올 행사는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투입돼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전국 생활문화인들 1만여명이 참가해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를 계기로 순천시민만의 생태와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생활문화 모델 구축을 통해 생활문화의 강소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